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23
vol.248



JUSTE UN CLOU

Cartier

Solitaires & Wedding ba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DE VILLE PRESTIGE
Co-Axial Master Chronometer

HYUN BIN'S CHOICE

훌륭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배우 현빈은 그가 연기하는 모든 역할에 특별함을 더합니다. 그의 세련된 스타일은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를 닮았습니다. 드 빌 프레스티지는 높은 기준을 가진 리더들을 위한 완벽한 타임피스로,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로 구동됩니다. 18K 옐로우 골드 케이스와 블랙 레더 스트랩 그리고 선-브러시드 마감의 동형 다크 그린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클래식한 매력의 드 빌 프레스티지의 슬림한 디자인은 탁월한 정확성과 만나 매 시간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고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구점



14

17



18



하나의 뜻이 완전한 주얼리로 탄생한 자스트 영 골루 컬렉션. 단순하고 명쾌한 못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 주얼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으로, 부드러운 타원형의 절제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지 속 18K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은 리드미컬한 곡선과 대담함으로 개성과 자유를 표현했는데, 우아함과 강인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문의 15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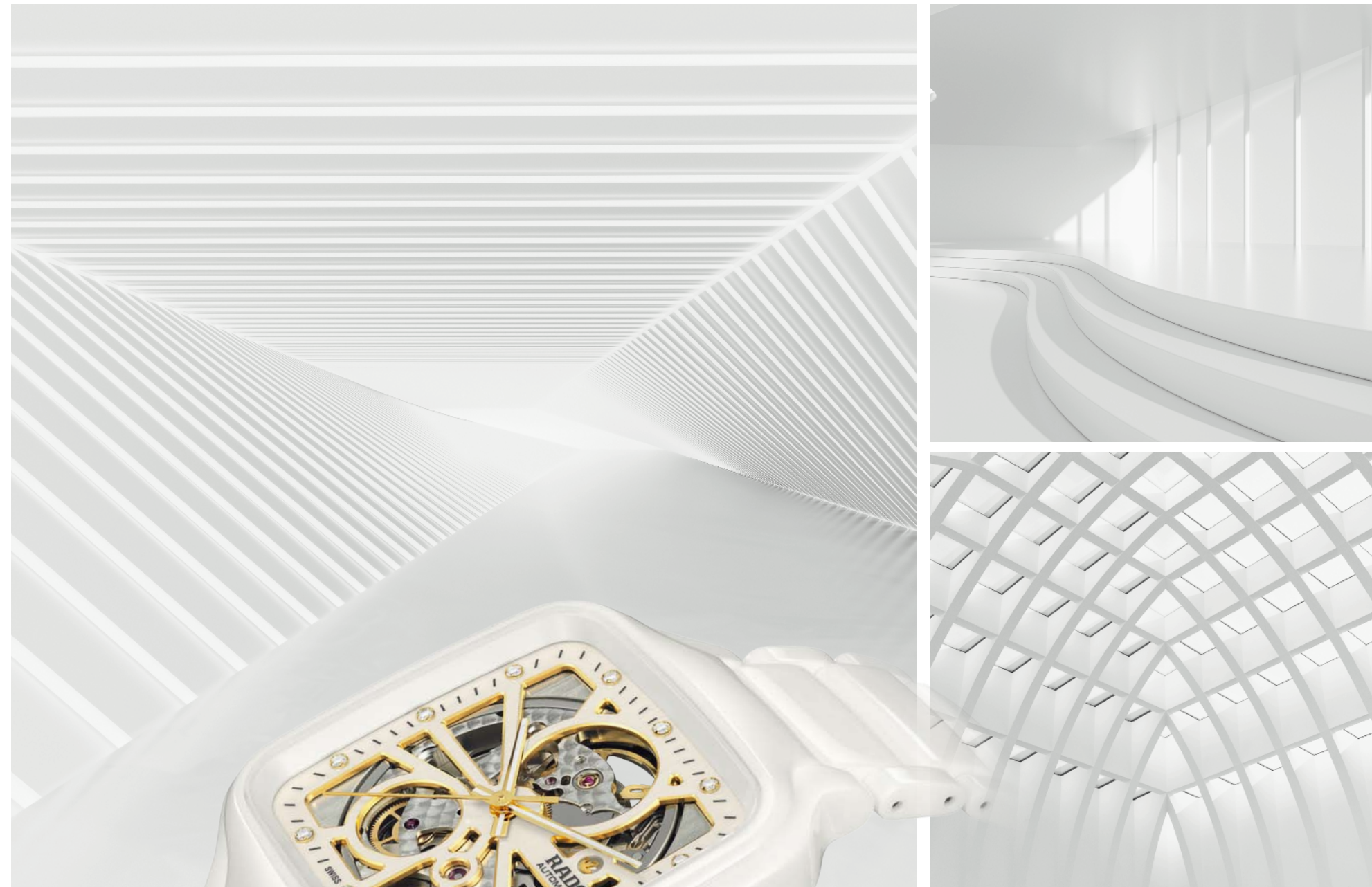
10

RADO

SWITZERLAND

MASTER OF MATERIALS

- 13 **LOVELY STEPS** 바진 로드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 웨딩드레스 사이로 은근히 보이는 슈즈는 특별해야 한다.
- 14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 지난해 말 주로 현대미술을 벗 삼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여정은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된 계기가 됐다. 루시퍼 시인이 번역한 동명의 책에서 '꿈의 시대'에서 온 사람들이라 불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토착민들, 축복 같은 대자연 속에서 피란민정한 세월을 견뎌내온 이 대지의 수호자들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동비용 살아가는 인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 17 **ALTERNATIVE THINKING** 시대를 꿰뚫는 비범한 통찰력을 지녔던 이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궁금할 무렵, 2008년 패션계에서 은퇴했던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가 돌아왔다. 20주년 기념 쇼를 마지막으로 패션계를 떠난 이래 시각 예술 작업에 전념해온 그가 선보인 첫 번째 개인전은 2021년 파리에서 열린 《마틴 마르지엘라 옛 리피에트 안티시페이션》(Martin Margiela at Lafayette Anticipations) 전시. 이후 순회전 방식으로 중국 베이징 엠 우즈(M Woods)에 이어 지난 12월 말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대규모 개인전의 막을 올렸다.
- 18 **DRAMATIC SCENES** 어쩌면 다시 경험하지 못할 순간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30 **TRIBUTE TO CRAFTSMANSHIP**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의 교세라 미술관(KYOCERA Museum of Art)에서 특별한 전시가 펼쳐졌다. 에르메스 시기에 가능한, 또한 에르메스 시기에 더욱 특별했던 장인들과의 만남, 'Hermès in the Making'.
- 31 **POETIC MOMENTS** 반클리프 아펠이 파리의 매력을 재현한 현대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벤트, 《사랑의 다리에서 마주하는 시간의 서사시》를 개최했다.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퐁 데 자모르 컬렉션',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발레리나와 요정', 우주와 별들의 눈부신 정반대 경이를 표하는 '포에틱 아스트로노미', 방돔 광장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낸 '쿠튀르의 친밀한 영감',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매혹적인 자연까지', 총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반클리프 아펠의 아시아-퍼시픽 회장을 맡고 있는 니콜라 루싱거와 나는 전시회 그리고 하이 주얼리 이야기.
- 32 **NEW LIFE, NEW FURNITURE** 인생의 뉴 챕터를 시작하는 신혼부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막대한 순간, 신혼집 가구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가구는 소유의 개념을 넘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기본 좋은 시작에 따뜻하고 정겨운 동반자가 되어줄 가구들을 소개한다.
- 34 **HOLISTIC REVITALIZING** 아름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앞선 생각을 하는 샤넬의 스킨케어 신제품, 레드 까멜리아의 향산화 효과와 영양을 듬뿍 담은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 라인 N1 DE CHANEL의 또 한번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36 **TIME TO REST** 사워 후 힐링 타임과 함께할 향 좋은 보디 크림 리스트.
- 37 **NIGHT EFFECT** 피부의 시간은 밤부터 시작된다. 피부 재생과 활성화에 최적의 시간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는 법.
- 38 **EDITOR'S PICK** 꽃샘추위 속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화사한 컬러감과 향을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Feel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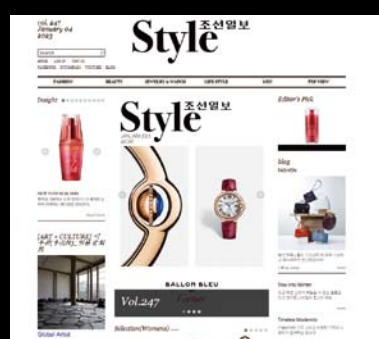
TRUE SQUARE OPEN HEART

Style

조선일보

Issue.248 February 2023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장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재판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자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강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New opening) 02-3479-1158 타임스퀘어점 AK PLAZA 분당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목동점 천호점 킨텍스점 울산점 갤러리아백화점 광고점 타임월드점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인천터미널점 대전점 전주점 울산점 부산본점

손목 위의 정원

반클리프 아펠의 매혹적인 장원을 담은 워치, 레이디 주르 누 데 플레르, 우선 다이얼 상단에 위치한 태양은 옐로 사피이어로 총총하게 세팅해 그 지대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노란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며 꽃밭 가득 생명력을 펼쳐 주는 듯 하다. 매종의 프리들리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12개의 화관은 해머드 골드 또는 화려하는 화이트 메다오브펠로 제작해 하트 형태의 꽃잎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컬러의 배경과 어우러진다. 하루의 끝이 다가오면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달이 빛나는 밤하늘에 등장하고 장원의 꽃들은 완배 워치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듯한 자태를 잡는다.
문의 1877-4128



GAIN CHAIN!

클래식함과 화려함, 개성까지. 때에 따라 다양한 무드를 연출해줄 체인 브레이슬릿. (아래부터 시계 방향) **타피니 하트웨이 링크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링크 디테일에 하-의 링크만 파베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해 포인트를 준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프렌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체인으로 엮은 18K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스텐 모티프가 포인트다. 1천3백3천원. 문의 02-2514-3721 **스티븐 헬스리 폴립사이드 체인 브레이슬릿** 18K 골드 소재의 체인 스타일 브레이슬릿으로 스파닝 코인 챔피언 개성을 더해, 각인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CLASSIC but NEW

펜디에서 바케트 백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바케트 특유의 디자인 요소를 다한 캡슐 컬렉션 피카부를 출시한다. 피카부 고유의 우아함과 클래식한 트위스트 잠금장치를 유지하면서 가장 앞면에 바케트의 아이코닉한 FF 골드 클래스프 장식 포켓을 배치해 펜디만의 유쾌한 감성을 전한다. 내부에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톤온톤 라이닝을 더해 완성도 있게 마감했으며, 견고한 파티션으로 수납공간을 분리해 실용성이 돋보인다. 피카부 아이싸우 미디어 백 7백만원대. 문의 02-514-0652



CHARMING SCENTS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을 땐 향수만큼 게 없다. 최근 출시와 동시에부터 파퓰러하게 뜨고 주목받고 있는 파퓰 네 가지를 소개한다. (위부터) **엔트루 비터 비테** 강렬한 우디 노트, 비닐리의 달콤한 향과 재스민의 감미로운 향이 만나 생기는 밸런스를 완성한다. 15ml 15만6천원. 문의 1533-1394 **알타리아 원더 오브 유** 블랙 커넬트와 핑크 지황, 프리지아 노트가 어우러져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움 시트러스 향이 특징이다. 100ml 33만1천원. 문의 1644-4490 **향세 1795 휘 랑세 칼렉션 오 드 프랑스 EDP** 베티베르의 향으로 시트러스 라벤더와 알랑왕향, 머스크의 여성스러운 향으로 마무리되는 플로럴 마스크 계열의 퍼플 100ml 17만2천원. 문의 070-8680-2231 **만세라 머스키 가든 EDP** 과일과 꽃, 그리고 머스크 향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정원은 온 듯한 느낌을 준다. 120ml 27만원. 문의 070-8680-2231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윤지영** 어시스턴트 **신영민**

LOVE it BAG

보간만 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하트 세이프 백 3종을 소개한다. (위부터) 스타트 장식이 특징인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의 모스카노 블랙 하트 바이커 백 1백50만원 **모스카노**, 문의 02-3448-1340. 편의성을 생각한 가죽 솔더 스트랩과 경량 체인이 특징이며, 가죽의 간결한 컷으로 살아난 볼륨이 돋보이는 알타리아 하트 백 2백만원대 **알타리아**, 문의 02-6905-3413, 코르도네토 레이스 소재로 유니크함을 더하고 중앙의 로고 하트가 귀여움을 자아낸다. 코르도네토 레이스 토트백 1백50만원대 **플레처** 7백1만, 문의 02-3442-688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윤지영** 어시스턴트 **신영민**



HEART to HEART

쇼파드 매종의 상징인 하트는 강력한 사랑의 메신저다. 쇼파드 오트 주얼리 워크숍에서는 공동 대표이자 디자이너 디렉터 캐롤라인 슈펠레의 창의성에서 영감받은 두 가지 하이 주얼리를 공개했다. 먼저 쇼파드의 시그니처인 레이스 세공을 활용한 하트 네크리스. 75개의 페어 컷 사피이어로 무지개빛의 아름다움을 창조했으며, 각 스톤 사이에 다이아몬드 단을 만들어 영롱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또 하나의 특별한 파스는 루비 링이다. 무려 181캐럿이 넘는 파격적인 무게의 빨간색 하트 모양 루비를 선택했으며, 2개의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감싸진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아름다운 두 하이 주얼리 파스로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해보자. 문의 02-6905-3390



완벽한 진화

화장품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능을 발휘하지만 성분은 안정화하기 힘들어 그동안 화장품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EGCG를 파우더 형태로 안정화한 뷰티 아이템이 출시됐다. 바로 아모레퍼마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인텐티브 리뉴얼 앰플. 사용 직전에 EGCG 파우더와 앰플솔루티(Absolu Tea™) 앰플을 혼합해 사용한다. 혼합된 포뮬러는 빈틈없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압도적인 입체 탄력을 선사한다. 타임 레스폰스 인텐티브 리뉴얼 앰플 세트(앰플 7ml+파우더 0.6g)X4 62만원. 문의 080-020-5757



행운의 발걸음

패라기모에서 토키해를 맞이해 2023년에 대한 희망적 영감을 담은 LNY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 아시아의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컬러는 레드로 선정했다. 토끼와 레드 컬러를 모티브로 실크 파올라드, 셔츠, 시그니처 트림폴리아노스튜디오 백을 포함한 레드 제품을 선보인다. 이중로 톰 스카커즈가 단연 돋보인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핑한 토끼모 레드 컬러로 캐주얼하고 다용하게 매치 가능하면서도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30-7854

고요하게, 편안하게



인체 공학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누하우스(NOUHAUS)의 리클라이너 체어 이름은 '루나(LUNA)'다. 고요한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과 같이 대자연이 주는 휴식의 영감을 담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 4D 무중력 리클라이너 체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단 제품답게 Dimension(체형별 입체 마사지), Depth(3단계 강도 조절), Degree(무중력 리클라이닝), Design(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요약되는 특징점을 내세운다. 최대 160도까지 자유롭게 좌우 회전 가능하며, 업그레이드된 핑거 롤링 듀얼 인마블과 자석을 3D 인마 모듈(45도, 60도, 90도)이 탑재되어 있어 '고요한' 입체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무중력 리클라이닝 듀얼 모터가 내장되어 최대 150도까지 상-하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유연한 곡선과 깔끔한 디자인을 지닌 루나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수작 'M200'이 설치된 서울 두손갤러리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행사에서 첫선을 보여 더 눈길을 끌었다. 색상은 다섯 가지(옐로, 옐다 화이트, 멜로 샌드, 다크 캐러멜, 큐어아 블루)로 나와 있으며, 누하우스 공식 온라인 물음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주문 가능하다.

TIME of SIMPLICITY



까르띠에의 탱크는 제1차 세계대전 시 사용된 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했다. 카보송 컷 사피이어로 절제된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워치는 출시 이후 전 세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탱크 프랑세즈 워치는 스틸 케이스와 카보송 컷 합성 스피넬로 장식한 크리운이 조화를 이뤄 신물한 멋을 드러낸다. 또 살바토 미감한 다이얼과 검 모양의 블루 스틸 핸즈가 돋보이며,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7백만원대. 문의 1877-4326



1 휴대성이 뛰어난 가죽 소재의 마스터스틱 셀렉션 6cc 지갑 55만원 **몽블랑**, 2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0.17캐럿 트라니트 링 2백만원 대 **카르띠에**, 3 울 소재의 핸드 핸드메이드 내일-헤드 울 슈트와 핸드메이드 내일-헤드 울 베스트 가격 미정 **탈프 로렌 라벨**, 코트 소재의 톰 포드 슬림 핏 라벨 드레스 셔츠 90만원, 실크 소재의 톰 포드 블랙 보타이 가격 미정 모두 **톰 포드**, 4 그래픽이선 컬러 렌즈가 매력적인 선글라스 4만2천원 **프라다 by 에실로 콰스타가**, 5 0.11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클래식 로얄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부쉐론**, 6 풋사코와 가죽류의 싱클링과 과일 향을 느낄 수 있는 모엣&상동 앰플 750ml 7만원대 **모엣&상동**, 7 숲의 향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블랙 오가드 EDP 50ml 21만원 **톰 포드 뷰티**, 8 소가죽 소재의 발빈 모노그램 스웨이드 슬리퍼 가격 미정 **탈프 로렌 라벨**, 9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옐로 골드가 만나 클래식한 맛을 전하는 드 빌 프레스지 코-엑시엄 마스터 크로노미터 파워 리저브 41MM 1천2백90만원 **오메가**, 10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핑크 골드 소재의 디사이드 핑크 골드 다이아 카프스 링크 가격 미정 **다이아니**, 11 실버 알루미늄으로 재구성해 견고함을 자랑하는 그레이 GG 수프릴 캔버스-실버 알루미늄 캐빈 트롤리 4백60만원 **구찌**, 12 4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골드 소재의 둥근 골드 스퀘드 장식과 볼 디테일 옐로 & 화이트 골드 크라운 스틱 핀 브로치 9백30만원 **롤렉스**, 13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숏이거 가죽 소재의 라이트 온 1백3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14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프랑칭 실드 트릴 소재의 7cm 타이 가격 미정 **에르메스**, 15 토고 카프 스킨 소재의 액시 캘리 백 2천만원대 **에르메스**.

몽블랑 02-1877-5408 **카르띠에** 1877-4326 **탈프 로렌 라벨** 02-3438-6235 **톰 포드** 02-3479-1417 **에실로 콰스타가** 02-501-4436 **부쉐론** 031-5170-1177 **모엣&상동** 02-2188-5100 **톰 포드 뷰티** 02-6971-3211 **오메가** 02-6905-3301 **다이아니** 02-515-1924 **구찌** 02-3452-1921 **롤렉스** 02-3442-6888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에르메스** 02-542-6622

for him Selection

단정하면서도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신랑을 위한 웨딩 베스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y yun



다음 날, 피부로 느끼는 압도적 입체 탄력

800배* 강력한 EGCG의 탄력 효능 함량으로 차원이 다른 완결피부

*EGCG 탄력 효능함량 기준치 대비 함량 비교 수치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AMORE PACIFIC



1 샤리아어 크리스탈 펜던트 안에서 3개의 다이아몬드가 움직이는 스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네트웍스 5백74만원 **쇼파드**, 2 볼드한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362만원대 **올세인트비나 by 에실로 옥스타카**, 3 사랑스러운 리본 자수가 놓인 비엔나 드레스 2천5백만원 **나일칸 by 헤라티드뉴욕**, 4 다이아몬드를 시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조세핀 이그레프 앙페르얌 다이얼 1억원대 **쇼페**, 5 아코아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만나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벨런스 듀오 진주 다이아몬드 이어링 가격 미정 **타카기**, 6 메달, 글라스, 스트라스 소재의 조합이 돋보이는 브로치 시셀 1백86만원대 **시셀**, 7 램 스킨과 메달로 이루어진 체인 클러치 가격 미정 **시셀**, 8 레드 골드 케이스에 1백80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레이다버드 4천1백만원대 **블랑팡**, 9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시팅한 샹스 인피니 크래피지 8 스톤 이어링 2천4천700만원 **프레이드**, 10 톱 핸들로 편의성을 더한 카브 소재의 세르펜티 라바스 백 4백35만원 **블랑팡**, 11 반짝이는 큐빅 포인트가 아름다운 메시 소재의 플리스 스트라스 1백70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12 실크 트릴 100% 소재에 정교한 칼라진 REVE D'INFIN 90 스카피 스카프 65만원 **디올**, 13 0.37카트의 리온드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소재가 특징인 에투알 드 파리 솔리테어 링 1천500만원대 **부세틴**, 14 최고급 시드르네 100%로 생산한 페르리에 주에 벨에포크 블랑 도 블랑 750ml 가격 미정 **페르리에 주에**, 15 양파 염소 천연 가죽 소재의 메달 톱 캣 플랫폼 빌레 슈즈 87만원 **엘포리오 아르마니**.

쇼파드 02-6905-3390 에실로 옥스타카 02-501-4436 헤라티드뉴욕 02-514-4010 쇼페 02-3442-3359 타카기 02-3461-5558 시셀 080-805-9628 블랑팡 02-3467-8426 프레이드 070-4732-0479 블랑팡 02-2056-017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디올 02-3480-0104 부세틴 031-5170-1177 페르리에 주에 02-3466-5701 엘포리오 아르마니 0507-1416-3012

for her Selection

반짝이는 주얼리와 리블리한 드레스까지, 가장 눈부신 신부로 만들어줄 브라이덜 에센셜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y yun**

Lovely Steps

버진 로드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웨딩드레스 사이로 은근히 보이는 슈즈는 특별해야 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발등을 감싸는 크리스탈 장식 스트랩이 돋보이는 페이퍼트 가죽 슬림백 1백57만원 **마유미유**, 문의 02-3218-5331, 세련된 시스루 자수와 앙가주 패턴을 더한 자드로 슬링백 펌프스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6905-0104, 은은한 광택이 도는 새틴 소재와 크리스탈 버클로 화려함을 더한 비글 스트라스 버클 슬림백 펌프스 2백32만원 **로자 비버이**, 문의 02-6905-3370, 에 나일 가죽과 TPU 소재가 만나 시크한 매력을 뽐내는 CHICA 슬림백 펌프스 가격 미정 **생 로랑**, 문의 02-6105-2228, 톤온톤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핑크 새틴 플 1백1만원 **올세인트비나**, 문의 02-3442-6888, 크리스탈 버클과 성세한 주름 장식 시트 만나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슬림 스타일의 살바라 가격 미정 **마블로 블랑파**, 문의 02-3479-1589, 평한 칼라진이 눈길을 사로잡는 가죽 소재의 윈 스타드 펌프스 1백17만원 **빌렌타노**, 문의 02-2015-4653 에디터 **윤자영**

1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



현대미술이 고맙게도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때가 있다.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감성과 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덕분인지, 단지 지식과 안목에 보탬이 되는 수준을 넘어 편견과 편향을 털어내고 보다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해준다. 그것이 매번 번득이는 각성과 담대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않을지라도, 순수하게 책 한 권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정신없는 일상 아닌가. 지난해 말 주로 현대미술을 벗 삼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여정은 '대지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된 계기가 됐다.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동명의 책에서 '꿈의 시대에서 온 사람들'이라 불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토착민들. 축복 같은 대자연 속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내온 이 대지의 수호자들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수년 전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을 찾았을 때 이런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현장을 잠시 접한 적이 있다. 사실 희소성 있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있다 vs 없다'의 두 갈래로 팽팽히 나뉜 열린 토론에서 정작 재미난 점은, 예술이 결코 정치처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해결책이나 압도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냉철한(?) 입장을 견지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었다. 엄연히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밥 먹고 사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말이다. 개인적으로 예술이 사적 차원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도 긍정적 변화의 주된 원동력이 된다거나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한 가지 믿음은 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현실의 민낯을 창조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드러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고 깨달음을 선사하는 예술의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세상에 널

러 있어도 무지와 무관심, 편견 등으로 말미암아 잘 보지 못하는 진실은, 때때로 예술은 날벼락처럼, 혹은 잔잔한 물결처럼 일깨운다. 자본주의의 꽃으로 상품화된 현대미술의 면모에 간혹 염증을 느끼다가도 이국의 도시를 여행할 때 여전히 미술관에 무심코 들르게 되는 건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이 수면 아래 은근히 작용하기 때문은 아닐까. 10여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갔을 때도 미술관을 향한 우연한 발견음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가 된 적이 있다. 솔직히 오스트레일리아에 관한다면 적 지식이라든가 여행지 정보를 충분히 채우고 떠난 여행길 이 아니었다. 현대미술이나 문화 예술 분야와는 관련 없는, 갑작스레 잡힌 출장이었다. 게다가 여행 작가 빌 브라이슨이 자신의 책에서 털어놓았듯 우리는 이 남반구에 커다란 땅덩이를 지닌 '자원 대국'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그는 특유의 호들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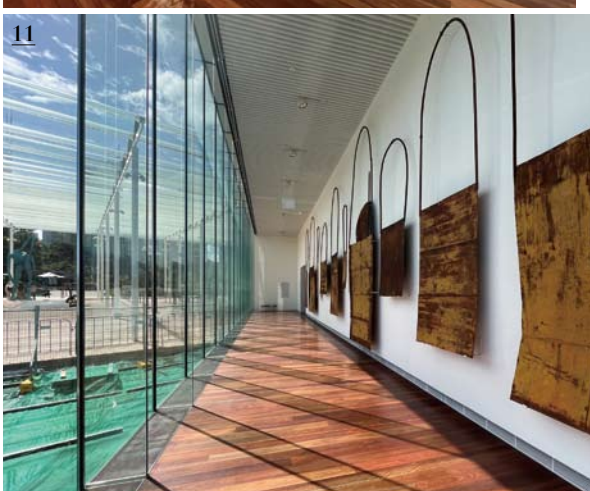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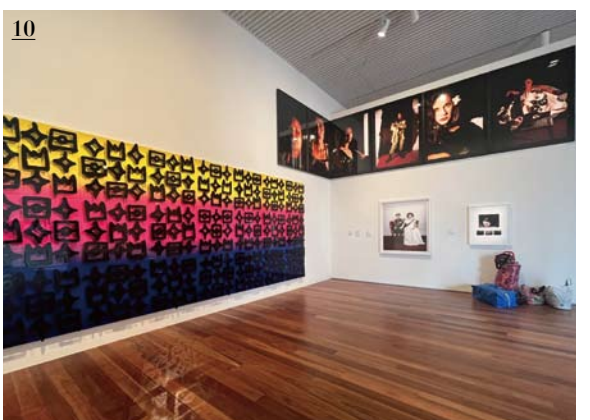
1, 2 경이로운 대자연의 풍경과 야생동물 등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최남단에 위치한 섬 태즈메이니아 주의 항구도시 호바트(Hobart)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주립 미술관(Tasmanian Museum and Art Gallery), 식민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창립과 역사의 회상물이 모여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역사와 예술을 조명하는 기획전 (taypani mlaythina-lu: Return to Country)가 열리고 있다. 2023년 12월 2일까지. 3 Bonnie Starick, 'Blak Enough'(2022),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만 '환형로 파부새'인 원주민의 발을 차올려 내 파부새는 충분히 블랙인가?라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털어놓는다. 4 호바트 시내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예술주로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화랑 아트 뎀(Art Mob)의 외관. 5 (taypani mlaythina-lu: Return to Country)전에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커뮤니티 출신의 20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6 Cheryl Rose, 'The Red Dress'(2022), 19세기 중반 백인 귀족 가문에 살다가 고아 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기록된 지역 원주민 소녀 미타(Mihina)의 스토리에 영감을 받은 2채널 영상 작품. 화면의 붉은 드레스는 소녀의 옷을 상징한다. * 1~6 photo by SY Ko(태즈메이니아 주립 미술관 건물과 전시 풍경 7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 프로젝트라고 불린 NSW 주립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의 미술관 확장 프로젝트의 결실로 지난 12월 초 개관한 신관과 기밀리를 둔 외관. 그리고 본관(재질 오프 화이트)이 나란히 있는 모습. exterior view of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ew SANAA-designed building, 2022. photo © Iwan Baan 이미 지 제공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8, 9 글로벌 공모를 통해 세계각진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전체 설계와 디자인을 이끈 NSW 주립 미술관 신관 1층에 자리한 '이리바나 갤러리(Irribana Gallery)'의 설치 모습. 벽면 무리처럼 보이는 설치 작업(원시인은 꽃을 먹는 효주의 야생 박쥐(flying fox) 형상으로 린 오스나(Lin Onus) 작가의 작품 Fruit bats(1991)). 10 이리바나-아비오리 진(aboriginal)과 토레스海峡(토레스 해협)의 원주민 등 호주 원주민 출신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벽기운대 설치된 회화 작품은 그라피티 작업 스타일을 차용한 생동감 있는 작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레코 레니(Reko Renni, b. 1974)의 Regalia(2015). 11 신관 1층 이리바나 갤러리에서 미술관 앞마당에 보이는 복도의 공간. 유리창 건너편 벽에는 미술관 커리션 작품으로 금속 페이퍼(플록)를 재료로 한 조각 작업이 설치돼 있다. Lorraine Connelly-Northey, 'Narabong-galang(many bags)(2022) * 8~11 photo by SY Ko(NSW 주립 미술관 신관의 이리바나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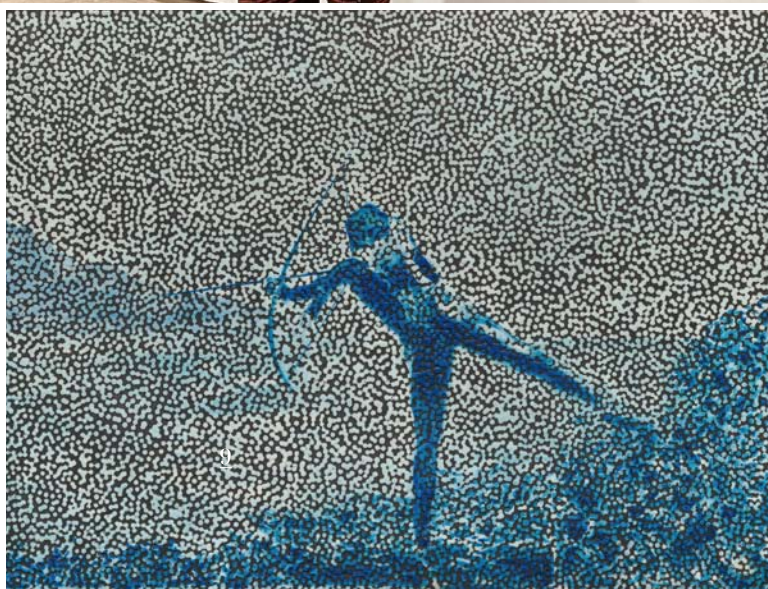
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머리 속에 '사죄'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알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는 18세기 말 영국이 자국의 죄수들을 이주시킨 유행(流刑) 식민지로 태어난 나라다. 1788년 1월 26일 영국 해군 아서 필립(훗날 오스트레일리아의 초대 총독이 죄수와 군인 등 1천 4백 명 기항의 이주민과 가족 등을 실은 선단을 이끌고 도착한 곳)이 바로 시드니항이다. 최소 7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원주민이 살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그들은 거침없이 차지했고, 양측의 관계는 아주 초기에만 우호적이었을 뿐 곧 쓰러진 근현대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 무자비한 학살과 결핵, 천연두 같은 전염병과 성병 등 이주민들이 들어온 질병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10여 년에 걸쳐 90%나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현재 원주민 인구는 전체의 3%대 수준). 그 뒤로도 유린은 지속됐다. 20세기 초에는 원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강제 이주를 밀어붙였고 기본 인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원주민-백인의 혼인으로 혼혈 인구가 급증하자 '동화 정책'을 펼쳤다. 그렇지만 말로만 '동화', '문명화'를 내세웠을 뿐 '순혈' 원주민은 사라지도록 방치하고 혼혈은 백인 사회로 흡수시키는 차별을 휘둘렀다. 심지어 원주민의 혼혈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백인 가정에 입양시켜 '생이별'을 겪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는데, 이 아이들을 가리켜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라 부른다.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기사 검색 같은 통계를 빌려 구구절절 설명했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캥거루, 코알라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는, 관광지로서는 인기 있는 나라지만 '화제성'을 따지자면 일리 있는 주장인 듯싶다. 하지만 언뜻 무척 평화롭게만 보여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광대한 나라는, 사실 꽤 흥미롭다는 빌 브라이슨의 말에 동의한다(여러 의미에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자 가장 큰 섬나라이며, 한 국가를 이루는 유일한 대륙, 한 대륙을 이루는 단 하나의 섬,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온갖 희귀 생물의 서식지 같은 상식 말고도 말이다.

작품에 앞서 '사회문'부터 내건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술관들
필자에게는 마침 격년에 한 번 치러지는 현대미술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던 시드니의 주립 미술관이 그 흥미의 단초를 제공한 공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풍경이지만, 미술 세계에서 동시대의 첨예한 이슈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엔날레의 성격상 '원주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현

늦게서야 각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95년 강제 분리의 희생양이 된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명 'Bringing Them Home'(1997)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발표한 건 2008년이 되어서다. 당시 케빈 러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의회에서 사과의 뜻을 담은 말을 거듭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작은 발견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이미 동시대 예술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원주민 탄압과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지만 미술계의 분위기도 더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원래 주인들, 영국 식민 통치에서 살아남지 못한 '무위 니나(Muwina)' 사람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태즈메이니아 원주민(Tasmanian Aboriginal) 커뮤니티가 루트루티아(지역 원주민어로 '태즈메이니아'라는 뜻)의 지속적인 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남단의 심인 태즈메이니아주의 주도 호바트(Hobart)의 주립 미술관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적힌 문장을 전시장 입구에서 볼 수 있다. 'Apology to Tasmanian Aboriginal People'이라는 제목의 사과문도 함께. 천혜의 자연을 품은, 면적이 제주도의 34배(62,409km²)나 되는 큰 섬 태즈메이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본섬과 떨어져 있지만 역시 유행 식민지로 처절하게 약탈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호바트에 있는 주립





1 11백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NSW 주립 미술관 본관 건물 외관. 2 NSW 주립 미술관 본관에서 열린 개인전 《Daniel Boyd: Treasure Island》 전장을 찾은 호주 현대미술계의 총아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 b. 1982)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호주 공공 미술관에서 갖는 보이드 최초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2005년부터 오늘날까지 창작한 80장이 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애버리진과 비유이투 원주민이 섞인 혈통의 작가인 보이드는 자신의 가족과 커뮤니티 아이리브 등을 활용해 오스트레일리아 식민 역사를 소원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다. 보이드의 시선이 닿은(불룩한 정물로 뒤덮인 회화 등 특유의 스타일이 보이는) 작품 속 인물들은 어린 시절의 자신(스킨과 아이비-리코). 3 NSW 주립 미술관 본관 전시장에 설치된 레코 레노(Reko Renni)의 평면한 감각이 돋보이는 설치 작업 《No Sleep In Dreamtime》(2014). 비스티 보이즈의 노래 제목과 장-미셀 바스카리아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4 지난 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트 페어 아트 SG(ART SG) 1회 행사에서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다니엘 보이드 작품 《Untitled (ASFTAB)》(2022). Oil and archival glue on canvas, 74 x 103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안현호. 국제갤러리는 테마별 기획전을 선보이는 포커스 섹션을 통해 다니엘 보이드 작품을 단독 조형했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5 Gordon Hookey, 《Mumland》(2017).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권위를 얻은 예술제인 카셀 도쿠멘타 14회(2017) 행사에서 선보였던 대형 벽화로 퀸즐랜드(Queensland)의 역사를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담았다. ※ 1~3, 5 photo by SY Ko

미술관(The Tasmanian Museum and Art Gallery)에서 는 현재 《taypani milaythina-tu: Return to Country》라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와 그 속에서 꽃핀 문화 예술의 풍경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한 혼혈 작가가 흰 편인 자신의 피부색을 보고는 “얼마나 원주민 파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난 32.65% 원주민(aboriginal)이야”라고 답하곤 한다는 냉소적인 문구를 보면, 엄연히 역사가 낳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명멸하게 하는 가슴 아픈 상처의 편린이 느껴진다.

변혁을 표방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와 원주민 작가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탄생한 이래 ‘역대급’ 문화 예술 프로젝트로 얼마 전 공개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립 미술관 신관에서는 ‘통합과 화해에 대한 의지가 더 여실히 드러났다. 8년여에 걸친 기간과 회화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 프로젝트의 결실로 19세기 후반에 세운 고색창연한 미술관 본관 옆에 일몰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그야말로 ‘모던하게 설계한 지상 1층, 지하 4층짜리 대형 미술관이 들어섰는데, 화합과 소통의 손길을 내밀거나 서로 손을 마주 잡은 인간 형상을 한 커다란 조각들이 놓인 앞마당을 지나 1층에서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큰 전시장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작가들의 작품(미술관 소장품)을 위한 공간이다(이미 본관 건물에서 1994년 전용 공간이 꾸려졌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리바나(Yiribana Gallery)’, 시드니 지역 원주민의 원어로 ‘여기로, 이쪽으로(this way)’라는 뜻이다. 정확히는 애버리진(aboriginal)과 토레스해협제도 원주민(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크게 본섬과 태즈메이니아, 그리고 토레스해협 원주민을 포함한다) 작가들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군데군데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이나 미술관 바깥 풍경이 보이는 유리창을 긴 뚫고 편안한 분위기가 ‘관람의 플러스 요인’이다. 신관을 지으면서 NSW 주립 미술관은 동시대의 주요 현안을 포용적으로 다루겠다는 ‘변혁을 선했는데, 이 가운데 당연히 원주민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으로 꼽히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원주민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땅을 침략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여겨진다. 학자들은 원주민들이 이 대륙에 온 시기를 4만여 년, 길게는 6만 년 전쯤으로 추정하는데, 18세기 말 영국에서 온 이주자들은 ‘주인 없는 땅(테라 놀리우스)’이라 명시하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리바나 갤러리와 더불어 미술관 곳곳에 자리한 원주민 출신 작가들의 예술을 찬찬히 보면 느껴지듯 이들은 시간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대지에 속해 있었다는 ‘꿈의 시대(dream time)’라는 고유의 세계관을 지닌 채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평화롭게 일구어왔다(원래는 5백 개 부족 주민이 약 2백50개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말살됐다). 자신들이 신성한 대지의 일부라고 여기고 수호자임을 자처한 이들은 몸에 그리는 문양도 개인과

부족마다 달랐을 만큼 창조성을 증시했다고 한다. 그토록 다채로운 예술가들의 작업 세계를 굳이 한데 묶어놓는 식의 공간이 별도로 필요할까, ‘애버리진 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질을 희석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NSW 미술관 본관에서는 애버리진 출신으로 차곡차곡 명성을 쌓아오고 있는 작가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기도 했기에(우리나라도 국제갤러리 전시를 통해 밀도 높은 호응을 받아온 작가다) 적어도 ‘균형’에 대한 노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들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창조성에 대해 모르는 수많은 지구인에게 인식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안내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스쳤다. 개개인의 영혼에 일으킨 인식과 감동의 파문(涟漪)이 하나둘씩 모이면 늘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프랑스 예술가 JR이 말했듯 결국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커리어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라며 작가 스스로 설명하며 미소 지었던 다니엘 보이드의 전시를 시드니를 떠나기 전 한 번 더 보러 발길을 재촉했다. **고광연**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展_롯데뮤지엄

alternative thinking

시대를 꿰뚫는 비범한 통찰력을 지녔던 아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궁금할 무렵, 2008년 패션계에서 은퇴했던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가 돌아왔다. 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In His Own Words》(2019)에서 예술계를 통한 복귀를 암시했듯, 마르지엘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현대미술가로 돌아왔다. 20주년 기념 쇼를 마지막으로 패션계를 떠난 이래 시각 예술 작업에 전념해온 그가 선보인 첫 번째 개인전은 2021년 파리에서 열린 〈마틴 마르지엘라 옛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Martin Margiela at Lafayette Anticipations)〉 전시. 이후 순회전 방식으로 중국 베이징 엠 우즈(M Woods)에 이어 지난 12월 말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대규모 개인전의 막을 올렸다.

“마르지엘라는 패션계에서 마지막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쇼는 총격 작전과 삼면체. 패션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패션계가 그를 받아주었을 때도 아웃사이드였고, 패션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계에도 아웃사이드예요.” 현재 패션 디자이너로 불렸던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가 은퇴한 이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패션업자들은 이렇듯 그를 회상하고 그리워했다. 마르지엘라가 관심을 갖는 ‘흔적과 시간’을 키워드로 우리는 그의 흔적을 찾기 바쁘고, 그의 부재와 침묵을 몹시 궁금해했다. 스스로 실체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틴 마르지엘라가 10여 년 만에 ‘이티스트’로 돌아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해체주의인 패션은 상식과 경계를 뒤엎는 예술이었으니까. 그래도 본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유가 좀 더 명확해진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나의 유일한 매개체인 인체(가나 무중계 느껴지고 시스템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창의적인 표현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더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했고, 경계 없는 순수한 창작을 즐기며 미술 학교에서 ‘스킨의 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1957년 벨기에 루방에서 태어난 마틴 마르지엘라는 앤트워프 왕립 예술 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한 후 장 폴 고티에의 첫 번째 어시스턴트가 되었다. 이후 1988년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를 창립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1997년 에르메스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2003년까지 총 12시즌의 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1988년 파리의 한 카페에서 첫 컬렉션 선보인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쇼를 보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수석 큐레이터 헤럴드 코드는 간단한 전락으로 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하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평한 적이 있는데, 현대미술가로 돌아온 마르지엘라의 이번 전시에 대해 코드의 말을 잠시 인용하고 싶다. 간단한 전락으로 이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하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 작품이 변형되는 과정을 그대로 작품의 일부로 차용해버리다 파트 블랙 앤 화이트(Bodypart B&W) 기존 미술관의 엄격한 작품 보존 방식으로부터 작품을 해방시키든지, 오프 화이트 색으로 칠한 미술관 벽에 드로잉을 한다든지, 작품의 네임 태그마저도 구겨난 종이로 만들어 붙이는 식이다. 모든 게 하다 만듯 대중한 것 같아 오히려 뭉개 보이지만, 마르지엘라는 크리에이티브의 정수를 안다면 이 완벽주의 은둔자의 정교한 연출법이 라는 것쯤은 쉽게 다룰 수 있다.

10년 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예술 작품들
이번 서울 개인전을 앞두고 유일하게 짧은 인터뷰를 진행한 롯데뮤지엄 수석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마르지엘라는 가장 중요한 건 ‘본래성(authenticity)’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패션계를 떠난 후, 시각 예술 이티스트로 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제 작품들은 완



3 202302 STYLE CHOSUN • 17

1 인체의 일부를 3D 스캔해 만든 ‘토르소(Torso) 시리즈(2018~2022)는 관능적인 고대 그리스 인체 조각상과 상반된 개념으로 만들었다. © 2022 LOTTE Museum of Art 2 마틴 마르지엘라의 데오도란트(Deodorant)(2020~2022)를 이번 롯데뮤지엄 전시 포스터로 선보였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데오도란트’ 작품을 바로 볼 수 있다. photo by Sujin Kim 3 한 편의 연극 같은 마르지엘라의 비디오 작업 ‘Light Test(2021~2022)’, photo by SY Ko 4 마르지엘라의 2019년 작품 ‘레드 네임즈(Red Nails)’는 인조화된 매력적인 도구와 상징적인 색상(사람들의 시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을 나타내는데,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의 개념을 다시금 상향하게 한다. 대형 크기로 제작된 레드 네임즈와 상쾌적으로 작게 만든 레드 네임즈 모델이 전시장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photo by SY Ko 5 바디 파트 블랙 앤 화이트(Bodypart B&W)(2018~2020)는 프로젝트 스크린에 오일 파스텔로 인체를 묘사한 드로잉 작품이다. 프로젝트 스크린을 캔버스 상이 묵인 드로잉으로 완성한 작품. 스테파가 관람객 앞에서 프로젝트 스크린을 내려 이미지를 공개한 뒤 다시 스크린을 올라가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이 손상되는데, 이 과정조차 작품의 일부로 보여준다. Old pastel on repurposed projector screen, 123 x 222 x 8cm, photo by SY Ko 6 2019년 작품 ‘카토그래피(Cartography)’는 마르지엘라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방향을 작가가 연구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인조와 달리 장수에서 자연 모방이 소용돌이치며 자라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고, photo by SY Ko



3

전히 비밀에 부쳐졌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라파예트 인티시페이션에서 전시(제안)이 왔을 때, 저는 지금이 적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중에게 작품을 선보일 준비가 되었죠.” 전시장에서 바로 옆에 서 있더라도 자칫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스스로는 단 한 번도 대중과 인연에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으며, 비밀에 싸인 인물이다. 심지어 컬렉션 쇼 홈페이지에서조차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단 한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꼭 필요한 킥쇼로 주고받았다. 16년 동안 그의 홍보 담당 디렉터로 일한 파트릭 스텔름은 ‘마르지엘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자체와 브랜드의 철학에 반응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이 갤러리의 예술가가 되겠다는 팀원과 작업하는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전시장에서도 이런 그의 철학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 그의 작품들은 애써 ‘작품’이라고 외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나 ‘정상’이나 ‘관심’에 의문을 던진다. 대표작 ‘데오도란트(Deodorant)’에 그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일상적인 물건(제안)인 데오도란트가 인조에서 자연스러운 체취를 인위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위생에 대한 관념도 산업화되어 바뀐 지금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이질감 있다고 느꼈던 ‘토르소 시리즈’는 언뜻 보면 그저 조각상 같은 오라를 자처한 사실은 인체의 일부를 3D 스캔해 만든 실로폰 조각으로, 만지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흐르는 조각은 인체의 어느 부분인지 추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자의 의미에도 의문을 갖게 하고, 조각과 반짝미의 경계까지 허물어 물음표를 만든다. ‘이름’이라는 속성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아름다움은 그러한 상황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성이다라고 한 그의 말이 전시장 곳곳에 배어 있는 듯하다. 마르지엘라에 관련된 작품들에서도 한결같은 그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 머리 카락 색상만으로 유년부터 노년까지 나타내는 ‘바티스(Vanitas)’는 작가가 인공 피부를 입힌 실로폰 구체에 자연 모발을 이식해 완성했고, ‘카토그래피(Cartography)’는 정수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자라는 자연 모발의 방향을 작가가 연구한 과정을 담았다. 뒤의 정수리 부분이 존재의 기원과 경향이 저장된 하나의 지도라고 생각했더니,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과 삶의 흔적을 고민했을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마르지엘라스러운 이 모든 작품들은 역시 오프 화이트로 칠한 미로에 숨겨져 있다. 롯데뮤지엄의 공간은 마치 미로처럼 느껴지는 특성이 있는데, 마르지엘라는 이 전시장의 평면도를 보면서 또 다른 미로를 떠올렸다고 한다. 감각을 두고 작품을 배치해 가기 담긴 의미를 반추할 수 있는 광활의 손길을 만드는 것, 그가 전시에 항상 사용하는 바티셀 블라인드 등 전시 연출의 작은 부분까지 마르지엘라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글 김진원(프렌즈 에디터 · 대릴런트 CD)

Dramatic Scenes

어쩌면 다시 경험하지 못할
순간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POMELLATO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8K 로듐 플래티넘 소재의 화이트 골드에 총 0.49캐럿, 3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포멜라토 투게더링, 18K 로듐 플래티넘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49캐럿, 36개의 사파이어를 세팅한 포멜라토 투게더링, 곡선미를 살린 모던한 디블 라인과 총 0.49캐럿, 36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포멜라토 투게더링 모두 가격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POMELLATO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누도를 다이아몬드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에 총 1.57캐럿,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누도 펜던트 네크리스, 같은 누도 컬렉션의 다이아몬드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소재에 총 1.87캐럿, 1백55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좀 더 볼륨감을 살린 디자인으로 18K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에 총 3.87캐럿 1백3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누도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시그처인 송아 록 태피를
우아하게 담은 코튼 블렌드 레이스 소재의 재킷
가격 미정 **디올** 02-3280-0104. 오프쇼의 리본
플래티넘 소재에 2.2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하고 주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부여한 데스티네
슬리퍼링 가격 미정 **카르띠에** 1877-4326. 원소의
링은 조세핀 황후를 모티브로 재주려 화려한 디자인이
문보이는 링으로 플래티넘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캐럿의 다이아몬드,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조세핀 스톤러더 인베리얼
슬리퍼링 가격 미정 **쇼메** 02-3442-3359.



(위부터 차례대로) 볼드한 디자인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2개의 원과 1개의 무빙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해피 스파릿 링 9백16만원 **소파드** 02-6905-3390. 2개의 정교한 플래티넘 브러시가 엮거리며 사랑을 상징하는 눈부신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의 인몬트로 다모레 링과 가스 링 가격 미정 **블기리** 02-2056-0170.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이브 피아제의 장미에서 영감받아 18K 화이트 골드에 9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41캐럿을 파베 세팅해 활짝 핀 한 송이의 꽃을 그대로 재현한 로즈 링 1천7백만원대 **피아제** 1668-1874. 플라워 모티브의 디자인에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2.19캐럿을 총총 하게 세팅한 화이트 골드 세팅 링 2천7백33만원 **그라프** 02-2256-6810. 화이트 골드 소재에 0.7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조세핀 아그레프 링 1천만원대 **쇼메** 02-3442-3359. 플래티넘 소재에 2캐럿 다이아몬드를 모던하게 세팅한 세팅 워딩 링과 플래티넘 소재의 하모 니 밴드 링 가격 미정 **타파니** 02-6250-8620.



(위부터 차례대로) 장미에서 영감을 받은, 화이트 골드 소재에 17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디올 바그텔 링, 화이트 골드로 섬세하게 디자인한 장미와 꽃잎 모양에 1.77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로즈 디올 바그텔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1.13캐럿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디올 바그텔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주얼리** 02-3280-0104.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시그니처인 숫자 5를 모티브로 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31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0.67캐럿을 세팅한 이타널 N5 이어링 1천7백30만원,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4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1개와 0.41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1개, 4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2.01캐럿을 세팅한 드롭 스타일의 이타널 N5 네크리스 6천9백80만원, 상징적 숫자 5를 표현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 0.2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1개와 1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2캐럿을 세팅한 이타널 N5 링 1천3백80만원 모두 **시벨 화인 주얼리** 080-805-9628.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곡선미를 살린 모던한 스타일의 18K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총 1.1캐럿의 38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이코니카 링, 로즈 골드 밴드 위에 각기 다른 사이즈의 총 0.7캐럿, 34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스웨이 형태의 모티브를 매치해 화려한 반짝임을 부여한 시벨아 링 모두 가격 미정 **포엠리토** 02-3143-9486, 18K 배이지 골드로 칼링 모티브를 모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한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1천2백50만원 **시벨 화인 주얼리** 080-805-9628, 18K 로즈 플레이트 화이트 골드 소재의 밴드에 64개의 총 1.3캐럿 다이아몬드와 4.1캐럿 화이트 토파즈 1개, 6.5캐럿 화이트 토파즈 1개를 세팅한 누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엠리토** 02-3143-9486, T 자를 모티브로 한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볼륨감 있는 스타일의 티파니 T1 와이드 풀 다이아몬드 한자드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02-6250-8620, 심플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 섬세한 비즈 장식과 다이아몬드로 눈부신 광채를 부여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3천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18K 화이트 골드 밴드 양 끝에 자유롭게 회전하는 모티브를 더하고 3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9백만원대 **피아제** 1688-1874, 브랜드의 상징적 표시인 네 인 클로버를 그대로 재현한 7묘세 화이트 골드에 섬세한 비즈 장식과 다이아몬드를 더한 빈티지 일함브라 링 5백만원대, 브랜드 시그니처 장식인 클로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밴드 라인에 섬세한 비즈로 경쾌한 무드를 더한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 링 1천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왼쪽부터 차례대로) 플라타넵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74개, 총 0.25캐럿을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 0.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포스텐 인게이지먼트 링 1천4백10만원, 브랜드 시그니처인 꼬임 형태의 플라타넵으로 이뤄진 모던한 스타일의 포스텐 웨딩 링 1백60만원 모두 **프리드** 070-4732-0479, 큐브를 하나하나 엮은 듯 독특한 기하학적 디자인의 밴드에 0.0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모던하면서 절제된 매력을 선사하는 아이스 큐브 링 1백42만원, 18K 옐로 골드 밴드에 0.01캐럿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준 아이스 큐브 링 1백42만원 모두 **쇼피드** 02-6906-3390.



(위부터 차례대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의미하는 대표 컬렉션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2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개를 세팅한 모던하면서도 상징적인 LOVE 링 5백만원대 **카르띠에** 1877-4326, 모던하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가운데 위치한 회전하는 밴드 디자인으로 특별한 다함 벨 에포크 릴 커플 밴드로 인접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부여했으며, 오른쪽은 로즈 골드로만 이뤄져 심플하고 모던한 매력을 준다. 모두 가격 미정 **다이아니** 02-515-1924, 브랜드 대표 아이클로저 베스트셀러인 커플 밴드로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며, 모던하면서도 기하학적이고 건축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로즈 골드 소재의 비저로일 밴드 링 2백40만원대 **블카띠** 02-2066-0170.



OMEGA

(우부터 차례대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세로 향의 스칼링 패턴 패턴의 PVD 라벤더 다이얼이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며, 로톤 도금 핸즈와 교차 배열한 로마숫자,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장식하고 6시 방향에 날짜창을 매치한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34MM 6백10만원, 18K 세드나™ 골드 소재 케이스와 태양광 패턴 마감 처리한 동형 PVD 다크 블루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며, 3시 방향에 날짜창, 6시 방향에 스물 세칸즈 차분 다이얼을 적용하고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칼리버 8802 무브먼트를 장착한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물 세칸즈 41MM 1천9백70만원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OMEGA

(왼쪽부터) 3시 방향에 날짜창, 6시 방향에 스물 세칸즈 차분 다이얼이 위치하며, 태양광 패턴 마감 처리한 세로 향의 스칼링 패턴 패턴 동형 PVD 로제틴™ 골드 다이얼이 특장인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물 세칸즈 41MM 1천9백10만원, 크리стал 마진 7번의 실버 다이얼이 심플한 맛을 전하고, 옐로 골드 도금 핸즈와 교차 배열된 로마숫자와 기능성 인덱스가 돋보이며, 배터리 자체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롱 라이프 7 기능을 갖춘 쿼츠 칼리버 4061 무브먼트를 장착한 드 빌 프레스티지 쿼츠 30MM 7백502만원 모두 **오메가**, 문의 02-6905-3301



(우부터 차례대로) 총 4.8캐럿의 48캐럿 다이아몬드를 베젤, 케이스, 다이얼, 러그와 크라운까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파베 세팅했으며, 무려 1백22시간 조정 없이도 정확한 문페이즈가 자리 잡고 있다. 칼라버 1410 AS로 구동하는 트래디셔널 문페이즈 가격 미정, 두께가 8.55mm에 지나지 않는 메종이 자랑하는 초박형 워치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은은한 유백색 다이얼을 매복했다.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펠 마넨 트랙과 심플한 인덱스, 그리고 바 핸즈로 장식해 간결한 멋이 돋보이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라버 2450 Q6 무브먼트의 페리모니 셀프 와인딩 가격 미정, 모두 **바쉐론 콘스탄틴** 02-3479-1879, 40mm 스틸 케이스에 월, 일, 요일을 표시하는 컴플리트 캘린더와 6시 방향의 요일 표창의 문페이즈가 조화를 이룬다. 무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발레베 컴플리트 캘린더 1천7백88만원, 4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이 우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6시 방향 문페이즈 둘레에 초침이 돌아오고, 12시 방향엔 요일과 월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위치한 레이디스더 우먼 컴플리트 캘린더 2천3백59만원 모두 **발랑탱** 02-3467-8426.



(우부터 차례대로) 폴리싱 스틸 케이스에 새틴 스트랩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슈퍼루미노바 인덱스와 블루 칼라의 다이얼로 청량한 느낌을 부여하고,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피아제 볼로 워치 42mm 1천7백50만원, 피아제 몰로인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라운드 베젤을 장착한 곡선형 스틸 케이스에 쿠션형 다이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기존보다 3mm 얇아진 6.5mm 슬림함을 자랑하며, 1200S17 기계식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한 피아제 볼로 스켈레톤 워치 42mm 4천2백10만원 모두 **피아제** 1668-1874.

(우부터 차례대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36mm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베젤을 장식해 화려하면서도 기품을 드러낸다. 강렬한 로만 인덱스와 도파네 핸즈가 만나 대담한 디자인을 자아내며,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오토매틱 RD830 칼라버를 장착한 엑스칼리버 36 에센셜 4천2백30만원 **로저드워** 02-3479-1403, 핑크 골드의 33mm 케이스와 브라운 가죽 스트랩의 조화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인 에기 르클드르 칼라버 868로 구동하는 마스터 울트라 빈 파페주얼 캘린더 가격 미정 **에지 르클드르** 1877-4201, 33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그랑 피 에를 적용했으며, 베젤에는 0.7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상세하게 세팅했다. 12시 방향에 문페이즈,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기능성과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인 클래식 문페이즈 7788 4천3백만원대 **브레게** 02-6905-3571, 베젤과 케이스 백에 사용한 ATZ 화이트 세라미크 마들 케이스에 적용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하고 다이아몬드를 훌륭하게 세팅해 화려함까지 더한 FM 037 가격 미정 **리샤르드 밀** 02-512-1311, 알프스와 같은 한 독수리에 영감을 받은 칼라버에 스포츠한 실루엣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여기에 0.81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18K 로즈 골드 소재가 조화를 이뤄 세련미를 가미한 알파인 01 36mm 3천3백55만원 **스포르** 02-6905-3390, 스틸 케이스와 스틸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을 탑재한 40mm 모델로 6시 방향의 날짜창과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핸즈와 인덱스를 갖춘 블루 패터닝 동형 다이얼이 클래식하면서도 도사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드 빌 트래저코-엑시절 마스터 크로노미터 40MM 1천5백10만원 **오메가** 02-6905-3301.

헤어 **알리나** 메이크업 **박수연** 모델 **Arina, Dennis**
어사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상정민, 윤자경**



tribute to craftsmanship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의 교세라 미술관(KYOCERA Museum of Art)에서 특별한 전시가 펼쳐졌다. 에르메스에게 가능한, 또한 에르메스에게 더 특별했던 장인들과의 만남, 'Hermès in the Making'.



1 에르메스의 역사와도 같은 양인정을 만드는 재료와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업대. 2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각자 익숙한 작업 장치를 들고 에르메스의 이 특별한 행사에 동참했다. 그리고 묵묵히 제품을 만들면서도 관람객들의 소용을 잊지 않았다. 3 가죽부터 스킵, 주얼리, 생활 소품 등등 에르메스에서 장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4 첨단 기술과 장인들의 수작업을 결합해 에르메스만의 아름다운 독특한 프린트의 스킵이 완성된다. 5 도자기 해나에너미다 정교한 그림을 그린다. 예술가의 터치가 배어 있는 플라스틱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에르메스의 철학, 지속 가능한 장인 정신

2022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에르메스는 교토 교세라 미술관에서 'Hermès in the Making' 행사를 개최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이 직접 제작 과정을 시연해 관람객들과 제작 현장을 공유한 이 행사는 에르메스 하우스의 창의적인 면모와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수공예 기술의 가치를 돌아보게 했다. 특히 교토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이 후대에 전수되는 도시이자 다양한 아티스트가 유난히 사랑하는 도시.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과 그 어느 곳보다도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다. 직접 마주한, '한 땀 한 땀'으로 표현되는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은 내구성, 품질, 혁신, 기술의 전수와 기능적 미학뿐 아니라 휴머니즘, 환경, 지속성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 깊은 울림을 전했다. 에르메스 하우스의 다양한 메리에 장인들은 이번 전시에서 대중과 직접 만나기 위해 작업 도구, 소재, 그리고 그들만의 전문성을 갖춘 채 교토로 향했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색채의 향연을 통해 전시장을 둘러보며 재미있고 독특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장인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개방된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이한 이번 전시의 시노그래피는 에르메스 하우스의 역사와 삶의 근간을 형성하는 네 가지 테마, 즉 노하우의 보존과 전수, 소재에 대한 존중과 품질, 장기적 약속, 지역사회 내의 정착으로 구성되었다. 에르메스의 이번 탐구는 장인의 기술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오브제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고급 소재로 제작한 오브제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져 대물림과 수선이 가능하다. 섬세한 패턴, 세심하게 인쇄한 컬러는 실크 스카프를 돋보이게 한다. 장인들을 통해 켈리 백의 숙련된 새들 스티칭과 장감한 결레를 제작하는 과정, 가방 수선에 요구되는 독창성과 경험, 새로운 에르메스 시계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쉐이크(Chaîne d'Ancre)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때 필요한 인내심, 화이트 포슬린 플레이트의 둥근 모서리에 포브드 누(Fauves de Nuit) 디자인을 채색하기 위한 섬세한, 마장 미술용 점핑 안장 에르메스 바바체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손재주를 선보였다. 작업대 하나하나에서 장인들의 섬세한 작업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직접 동참할 수도 있어 남다른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장인 앞에서 한없이 서툰 어린이처럼 어설피기만 했지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유쾌함이라니! 이 행사가 단순한 전시가 아닌 작은 축제처럼 느껴진 시간이었다. 수공예 워크숍, 둥근 갈을 활용한 음악 작곡, 채색 등 오감을 자극하는 인터랙티브 게임 등도 각 관람객의 취향에 맞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르메스의 독특한 관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감독 프레데리크 라퐁(Frédéric Laffont)의 <Footsteps Across the World> 컬렉션 영상이 상영되어 근사한 프랑스 영화를 본 듯한 여운을 남기며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품격을 높여주는 휴먼 크레프트맨십을 유쾌하게 풀어낸 에르메스의 'Hermès in the Making'.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럭셔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뜻깊은 기회이기도 했다.



Poetic Moments

반클리프 아펠이 파리의 매력을 재현한 현대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벤트, <사랑의 다리에서 마주하는 시간의 서사시>를 개최했다.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퐁 데 자모르 컬렉션',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발레리나와 요정', 우주와 별들의 눈부신 장관에 경의를 표하는 '포에틱 아스트로노미', 방돔 광장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낸 '쿠튀르의 찬란한 영감',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매혹적인 자연까지, 총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반클리프 아펠의 아시아-퍼시픽 회장을 맡고 있는 니콜라 루싱거와 나누는 전시회 그리고 하이 주얼리 이야기.

Stylechosun(이하 SC) 한국에서 전시를 선보이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봉쇄되었다가 최근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파리의 러브 스토리를 서울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퐁 데 자모르'는 반클리프 아펠의 성공적인 시계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또 포에틱 컴플리케이션(Poetic Complication)과 잘 어울리는 주얼리 또한 함께 보여주면서 반클리프 아펠이 어떤 매종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 스위스에서 워치메이커분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고객과 방문객에게 저희 매종의 독보적인 워치메이킹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벤트를 기념해 최신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작품인 레이다 주르 누 데 플레르 워치를 공개합니다. SC 전시회에서 80여 점의 넘는 페트리모니얼 피스의 아카이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컬렉션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해서 매종은 어떤 부분에 가장 힘을 쓰고 있나요? 저희는 매종의 아카이브를 계속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반클리프 아펠 기운의 2세대 자크 아펠이 시작한 미션, 역사에서 소중한 피스를 다시 사들이고 수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제품은 제작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제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피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를 소유한 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엘라베스 테일러 등 유명 인사들이 소유했던 피스도 다시 사들이려고 합니다. SC 그렇다면 가장 인상적인 피스를 골라주세요 있을까요? 우선, 바루나 요트(Varuna Yacht)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피스는 요트의 소유자가 스페셜 오더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이 요트는 집을 부를 수 있는 차임벨(push bell)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역사상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원하는 것을 실현한 첫 번째 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종의 아카이브인 된 zip 네클리스(Zip Necklace)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오리지널과 컨템퍼러리, 두 가지 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노디에르(Miraudière)도 매우 재미있는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매종의 톱클래시컬을 위해 만든 것인데, 처음 그 수가 저에게 담뱃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립스틱, 담배 같은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특별한 피스인데, 이것이야말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어 그다지 쓰이지 않지만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수요가 있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SC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인 포에틱 오브 타임(Poetry of Time)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차별성은 스토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를 시계에 구현하는 것이 반클리프 아펠 워치메이커의 역할입니다. 레트로그레이드 무브먼트로 각각 시간과 분을 표시하고 두 연인이 자정도 정오에 다리에서 만나 인맞춤을 나눕니다. 장미와 우산 디테일은 로맨틱함을 더합니다. 또 서정적인 시계를 언제든 되살릴 수 있도록 에메이시온 디엔드 모듈로 낭만적인 장면을 원하는 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버전, 데이 버전, 그리고 한정판인 포시즌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SC 그렇다면 이번 스토리텔링은 어떤 영감에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반클리프 아펠의 DNA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매종 탄생이 창업자 알프레드 반클리프와 에스테렐 아펠의 러브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늘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 쿠튀르, 그리고 우주, 밤하늘 혹은 천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본사가 파리에 있기 때문에 파리가 전시의 중심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펠 가문 이 발레를 열렬히 사랑했고 인부가 조지 발라신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발레와 발레리나도 중요한 요소죠. SC 행사를 보고 나서 관객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구현한 이상적인 파리 공간과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와 작품을 통해서 매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나아가 삶의 근사함이 걱정될 것 없이 버리고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터 윤지영



1 2018년부터 반클리프 아펠 아시아-퍼시픽 회장으로서 역임 중인 니콜라 루싱거. 2 고객의 스페셜 오더 메이커 제품인 바루나 요트(Varuna Yacht), 1909년경. 3 반클리프 아펠 <사랑의 다리에서 마주하는 시간의 서사시> 행사장 입구에서 보이는 사랑의 다리. 4 마치 피에로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행사장의 모습. 5 이벤트를 기념해 공개한 반클리프 아펠의 레이다 주르 누 데 플레르.





1 좌석, 등받이, 팔걸이를 접고 볼 수 있어 무한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비엔비 이탈리아의 카멜레온. 2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마리오 벨리니가 바퀴에 놓인 순간 담고 있는 물간에 따라 모양이 형성되는 소량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르 방블레 입체. 3 구조를 지지하는 재료와 자연스러운 형태가 전달하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르 방블레 시리즈의 방블레도. 4 부드러운 면사도 감아진 있는 곡선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이닝 테이블 일루어 오(Allure O)와 플레어 오(Flair O) 체어. 5 자연의 아름다움과 재료의 본질에 집중하는 델쿠르 컬렉션의 DUA 테이블. 6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인 패브릭과 내추럴한 느낌의 우드 베이스가 어우러져 현대 가구와 공예 작품 사이에 자리한 POP 소파. 7 실크, 모헤어, 셰틀랜드 울 등 엄선한 고급 소재만 사용해 제작한 바이 스프링의 셰리암 수베르 프라이엄 라인 모델.

전통과 칸팸파리를 아우르는 가정의 가구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구업계를 선도하는 비엔비 이탈리아. 1966년 피에로 암브로지오 부스넬리가 이 브랜드를 처음 창립했는데, 부스넬리는 당시 전통적인 가구 제조 방식을 고수하던 까시나와 협업해 혁신적인 가구 제조 기술을 선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파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소파 프레임에 목재가 아닌 스틸을 사용하면서 견고함을 더했다. 그리고 최초로 폴리우레탄 폼 몰딩 기술을 이용한 쿠션을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상품화했다. 이러한 비엔비 이탈리아의 기술은 당시 디자인 가구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혁명 같았다. 1975년 비엔비 이탈리아에서 막살토(Maxalto)라는 컬렉션을 세상에 선보인다. 막살토는 'maximum beauty'란 뜻을 지닌 베네치아 방인 'massa alto'에서 기원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고의 소재와 장인 정신, 그리고 정교한 디테일을 강조하면서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지금은 디자인계의 거장으로



**new Life,
new
Furniture**



인생의 뉴 챕터를 시작하는 신혼부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벽찬 순간, 신혼집 가구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가구는 소유의 개념을 넘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기분 좋은 시작에 따뜻하고 정겨운 동반자가 되어줄 가구들을 소개한다.

불리는 안토니오 치테리오가 모든 디자인과 디렉팅을 하고 있으며, 프렌치 클래식의 부르주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미성을 보여준다.

가구와 공예 작품의 경계, 델쿠르 컬렉션

프랑스에서 가구의 신봉 강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크리스토프 델쿠르. 그는 다른 가구 디자이너와 다르게 파리에서 연극 학교를 졸업하고, 30대가 되어 뒤늦게 독학해 가구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가 1998년 파리 마레 지구에 가구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그다음 해 바로 국제 홈데코 박람회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한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업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재료의 본질에 집중한다. 델쿠르 컬렉션의 가구들은 목재, 세라믹, 스틸, 가죽 및 섬유 등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재료의 내재적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하는 동시에, 촘촘한 짜임새와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겨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1백20여 년 전통의 핸드메이드 침대

신혼 가구 리스트 중 특히 자신의 체형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구입해야 하는 가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침대. 1백2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바이 스프링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메이드 투 오더' 제작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스

프링은 물론 내구재, 매트리스 커버, 스타칭까지도 모두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최적화된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 특히 일반 침대에 사용하는 라텍스나 합성 소재 대신, 모든 재료가 침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끔 100%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도 특징. 천연 소재인 스코틀랜드 북부 셰틀랜드(Shetland Island)의 천연 순양모를 사용하고, 캐시미어, 모헤어, 대나무, 실크, 오스트리아의 무스버거(Moosebucker) 지역의 말총 등 천연 소재 중에서도 최고급 소재만 엄선해 만들었다. 특히 침대 회사 중 유일하게 양을 해치지 않고 생산하는 브리티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울만 사용한다. 문의 인퍼니 02-3447-6000 에디터 **윤자영**



Holistic Revitalizing

아름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앞선 생각을 하는 샤넬의 기다리던 스킨케어 신제품. 레드 까멜리아의 항산화 효과와 영양을 듬뿍 담은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 라인 N°1 DE CHANEL의 또 한번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겨울에 피는 레드 까멜리아의 강한 생명력으로 라미카텔리아징 효과를 선사하는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 50g 14만3천원, 리필 50g 11만9천원.

노화의 징후에 주목하다

모든 분야에 늘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샤넬은 안티에이징 케어에서 노화의 첫 징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시작했다. 노화는 시작되자마자 견잡을 수 없이 진행되므로 처음 노화의 징후를 느꼈을 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성분과 제품에 집중한 것. 샤넬 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세포 노화 분야 전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노화의 징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피부 세포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과 스트레스, 자외선, 오염 물질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활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피부 겉에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샤넬은 혹독한 시기인 겨울에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꽃이자 샤넬의 상징인 까멜리아에서 노화의 첫 단계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성분을 발견했다. 까멜리아 중 '차르(Czar)'라는 품종에서 얻은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이 바로 그것. 이 성분은 피부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부에 작용해 활력을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건강한 광채를 유지하기 위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 성분으로 탄생한 샤넬 뷰티의 혁신적 노하우가 담긴 제품 라인이 바로 N°1 DE CHANEL이다.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능을 완벽한 텍스처에 담다

지난해 선보인 샤넬 N°1 DE CHANEL은 스킨케어는 물론 메이크업과 보디, 프레이그런스까지 결합한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를 표방한다. 따라서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부터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피부를 깨워줄 토너, 미스트뿐 아니라 피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줄 세럼과 에센스, 아이 크림과 크림까지 갖췄다. 여기에 메이크업 단계에서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레드 까멜리아 파운데이션과 립 앤 치크 밤, 까멜리아 꽃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플로럴 노트를 지닌 레드 까멜리아 향수와 그 향을 담은 바디 세럼 미스트까지 출시해 아침부터 밤까지 까멜리아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에는 혹한의 추위에도 살아남는 레드 까멜리아와 같이 어떠한 자극에도 피부를 탄탄하고 촉촉하게 지켜줄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을 출시했다. 이 크림이 특별한 이유는 샤넬 최초 까멜리아 세라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세라미이드란 본래 피부에 포함되어 지질 성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치 천연 시멘트와 같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피부에 있던 수분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것. 하지만 세라미이드는 피

1 레드 까멜리아 성분을 함유해 추운 겨울 날씨 주름, 모공, 탄력 저하, 광채 부족, 건조 등 노화 징후를 해결해줄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듀오,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과 리치 크림. 2 N°1 DE CHANEL 라인의 핵심 성분인 레드 까멜리아를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샤넬 뷰티 농장. 3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샤넬으로 상쾌한 감촉을 선사하는 투명한 젤 텍스처가 일품이다. 50ml 19만9천원.

부가 노화될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여기에 추운 날씨와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 세라미이드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세라미이드가 부족해지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붉은기가 생기며 수분 손실로 인해 주름이 드러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 바로 기존 레드 까멜리아 성분보다 세라미이드를 접목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이다. 레드 까멜리아 성분은 함유한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은 N°1 DE CHANEL 라인의 세럼이나 에센스 등과 같이 피부 활력을 향상시켜 피부 노화 첫 단계에 작용한다. 여기에 까멜리아 세라미이드와 까멜리아 미생물에서 얻은 피치가 속 이스트 추출물을 더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며 고농축 까멜리아 오일 성분으로 피부에 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촉촉하게 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한다.

감각적인 스킨케어 리추얼을 위한 탁월한 선택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이 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텍스처 덕분이다. 무겁지 않은 리치한 포몰로로 모든 피부 타입에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부드럽고 풍부한 크림 제형이 피부를 포근하게 감싸 스킨케어를 하는 동안 감각적인 리추얼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기에 N°1 DE CHANEL 뷰티 리추얼의 핵심인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역시 피부 활력을 지켜주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주

름, 모공, 탄력 저하, 광채 부족까지 다섯 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천연 유래 지수 최대 97%와 78%의 까멜리아 추출 성분으로 이뤄져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상쾌한 감촉을 지닌 투명한 젤 텍스처는 피부에 즉각적으로 흡수되며 민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 레드 까멜리아 세럼으로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고, 레드 까멜리아 리치 크림으로 피부에 편안함과 영양감을 선사하면 어린 생기로 빛나는 피부로 가꿀 수 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성

샤넬은 시대에 발맞춰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을 N°1 DE CHANEL에 그대로 적용했다. 재생 가능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포몰로로, 제품의 효과는 물론 안정성과 감각적인 경험을 모두 만족시킨다. 그뿐 아니라 까멜리아의 꽃잎과 씨앗, 효모까지 모두 사용해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속 가능한 패키지도 역시 눈에 띈다. 전체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전 라인의 80%를 유리로 제작했으며, 크림의 경우 리필 가능한 패키지로 선보인다. 그뿐 아니라 셀로판 소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인서트 대신 QR코드로 대체했다. 보틀에 사용한 잉크 역시 친환경 잉크를 적용했으며, 모든 제품의 캡에는 재활용 소재 또는 식물에서 공급 받은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특히 까멜리아 씨앗 껍질을 사용해 만든 크림 보틀의 캡이 돋보인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성영민**



Time to Rest

샤워 후 힐링 타임과 함께할 향 좋은 보디 크림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킨포크 노트 & 바디로션 스텝러 인 더 그래스** 코펜하겐의 숲 로 라이프 매가진 (킨포크에서 출시한 보디 크림으로 비르지니아 수분 필드를 한 겹 덧씌운 듯 촉촉한 보습과 영양감이 돋보인다. 싱그러운 민트 향도 매력적이다. 300ml 4만8천원. 문의 070-4333-4323

샤넬 레드 까멜리아 바디 세럼 미스트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는 레드 까멜리아 오일과 상쾌함을 선사하는 까멜리아 워터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향산화 효과를 선사하며, 보디를 더욱 탄력 있게 가꿔준다. 부릴 때 청량감이 일품이다. 140ml 12만4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논리션 인 더 샤워 상신을 편안하게 하는 우디 향이 물에 오래 남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끈적

임 없이 비르지니아 흡수되어 살갗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로 사용 시 불편함이 없다. 보습 효과가 뛰어난 스위트 아몬드 오일과 이보카도 오일, 세사미 시드 오일의 조합으로 건조한 보디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한다. 300ml 3만9천원. 문의 1666-7891

르 라보 바질 바디 크림 이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사야바타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는 각종 성분을 잘 배합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며 인공색소나 파라벤을 넣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은은한 바질 향이 일품. 250ml 5만8천원. 문의 02-6971-3204

폴라츠오이스 5% 나이아신아미드 바디 세럼 비타민 B3로 알려진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색소침착을 완화하며 불균형한 피부 톤을 고르게 해주는 보디 세럼. 가법고 산뜻한 제

향으로 샤워 후 바로 사용한 다음 보디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더욱 매끈하고 환한 피부로 가꿔준다. 118ml 3만9천원. 문의 1661-6656

오라베 리스토라티브 바디 크림 코트 다쥘로 풍부하고 리치한 진꽃빛 텍스처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오라베 헤어 케어의 시그니처 향을 담아 은은하고 고급스럽다. 300ml 9만3천원. 문의 1644-4490

탤버린즈 바디로션 BIGALIGO 초여름 한바탕 시원한 스나기를 겪고 난 후 물기를 머금은 비가리드 오렌지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되어 과육의 진한 상큼함과 달콤함을 지나 향긋한 이보카도 노트의 시더우드로 마무리되는 향의 보디로션. 235ml 3만8천5백원. 문의 1644-1246 에디터 **상영민**

에디터 **상영민**

Night effect

피부의 시간은 밤부터 시작된다. 피부 재생과 활성화에 최적의 시간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는 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세럼** 피부 활력을 일깨워주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주름, 모공, 탄력 저하, 광채 부족과 불균일까지, 피부 노화의 다섯 가지 징후를 개선한다. 투명한 젤 텍스처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흡수되며, 피붓감을 부드럽게 가꾼다. 50ml 19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시슬리 수프리아미트 나이트 더 수프림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로션 외부 활동으로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는 밤에 사용하는 나이트 타임 스킨케어 라인. 수프리아미트 라인의 로션이다.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을 함유한 고농축 텍스처가 피부에 흡수되면서 재생 메카니즘을 활성화해 밤사이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시킨다. 140ml 30만원. 문의 080-549-0216

프라이티 엘라시어 스킨 리조르만스 에텐베어링 세럼 핵심 성분인 아프리카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자라는 모리셔스 티의 스킨 리조르만스 유류 성분을 농축해 담겨 피부 향산화 작용을 돕

고 쉽게 자라지 않는 탄탄한 피부로 가꾼다.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으로 피부에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50ml 17만8천원. 문의 02-3479-6202

방롬 프라미 리제네라 II 피부 클라닉에서 시작된 뷰티 브랜드 방롬의 스킨케어 노하우가 가득 담긴 크림으로 유휴된 있는 재형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을 채워 촉촉하고 활기 있게 가꿔준다. 리제네라 II만 만들지 않는 밤 타임. 50ml 36만원. 문의 070-4352-5203

라프라이 스킨 케어 하모니 렉스토크 이상적인 케어! 생분 조합인 케어! 인파! 트 성분을 함유한 제형으로 지친 피부를 강화하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세럼 전 단계 제품. 피부에 비로인 젤 텍스처로 변하면서 빠르게 흡수되는 에센스 캡슐을 함유해 감각적인 리우업을 경험하게 해준다. 20ml 1백만8천원.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제네라 아이 수퍼차이지 펄-크림 기존 갈색영 아이 젤 크림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형으로 기존 제형보다 더 빠른 효과를 선사한다. 특히 2주 안에 다크 시클 개선에 도움을 주며, 그 외에도 잔주름, 건조함 등 눈가 피부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는 만능 아이 크림. 무엇보다 켈 행태의 아주 가볍고 프레시한 텍스처가 피부 온도를 내려주고 예민한 눈가에 과하지 않은 사용감을 선사한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15ml 10만7천원. 문의 02-6971-3212

생스카인 나노 골드 에나자이징 크림 나노 입자 함유 24K 순금을 천연 단백질로 이뤄진 스킨 미세 성분을 겹겹히해 피부 세포층에 잘 전달되며, 상쾌한 안티에이징 크림, 순금은 향산화, 항염테라피, 항염 작용 및 보습, 독소 제거 효과로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콜라겐 성분이 피부를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젊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꾼다. 50ml 70만원. 문의 070-4370-7511 에디터 **상영민**

에디터 **상영민**

editor's Pick

꽃샘추위 속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화사한 컬러감과 향을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루나 라이팅 업 포플라넷 #7호 페어링 퍼플 핑스 펜스 브릭 이는 글러터 제품으로 포인팅 아이 메이크업을 즐겨 하는 편이다. 입자와 색상이 다 양한 팔리언을 찾고 있던 중 발견한 제품. 퍼플 핑크의 컬러감과 비비탄 텍스처로 발림성이 좋다. 월 인자제로 그에 맞게 살기 멜팅, 크림 파우더, 워터 젤. 총 세 가지 텍스처로 담아내 원하는 무드에 따라 피팅하고 자연스러운 글러터 메이크업을 연출 할 수 있다. 4.2g 1만6천원. 문의 080-024-1357. *by 인턴 에디터 신영민*

아우클러스 언리드 새틴 크림 립스틱 #RED 0 비비탄지지 입술을 매끄럽게 감싸 면서 가볍게 인착되어 데일리 사용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보다도 오일 과 망고 시드 바티를 함유한 울트라-하이드라팅 립스틱이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 지시킨다. 게다가 모든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비건 립스틱이다. 4g 가격 미정. 문의 1644-4480. *by 에디터 윤지경*

모로칸오일 바디 수플레 해안로 보디 케어로 유명한 모로칸오일의 시그니처 보디 크 린이 리제일되었다. 모로칸오일의 시그니처 향인 프라그런스 오일향을 담아온 한 보디 리치움을 선사한다. 꾸러민 저항에 비해 피부에 빠르게 녹아들어 흡수되는 텍스처가 일품. 하루 중일 촉촉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 200ml 5만2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신영민*

멜란인케어즈 다크 립 캔들 카보네제를 함유한 천연물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 비비 탄에서 대중화된 머릿기름, 베어링에서 영감을 딴다고 스파이시한 향이 코를 자극한다. 자두와 베르가모트, 크로미한 우유와 달달한 향도 내뿜는다. 현지 피팅하고 풍요로운 느낌이다. 느리게 연소되는 캔들라 6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260g 8 만2천원. 문의 1644-4480. *by 에디터 장리윤*

자형시 뷰티 꾸뛰르 데인 에디션 23 명 꾸뛰르 쿠션 C105 피부가 답답한 느낌을 실 어베이스 메이크업을 즐기지 않는 편. 같은 고민을 하는 이라면 이 쿠션을 추천한 다. 비비탄 입은 듯 가벼워 무엇보다 피부에 착 달라붙어 묵아짐 없이 매끈하게 마 무리된다. 여러 번 바르지 않아도 잘다나 요철까지 훌륭하게 커버하는 것 역시 장점 이다. 13g 9만1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신영민*

VDL 캐비 스테인 퍼퍼밍 파운데이션 A01 초고화질 파운데이션이라는 별명을 붙 여주고 싶은 제품. 공기처럼 가벼운 에어 포어 파우더를 통해 탄력있고 높은 커버 령을 지원한다. 특히 피부의 굴곡이나 요철에 촘촘하게 밀착되어 무결점 피부를 연 출해준다. 또 친한 보습 고분자 성분을 함유해 오랜 시간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30ml 가격 미정.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윤지경*

디올 뷰티 디올스 10 콜라겐 팔레트 #001 미자 에디션 - 미자 리미티드 에디션 디 올 하우스의 레오나르도 프란체에서 영감을 쿠티르 패턴으로 장식된 케이스 안으로 도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베이지, 브라운, 버건디 등 다채로운 컬러로 구성된 아이 셰드 셀렉션은 데일리 아이 메이크업에 강렬한 톱까지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18.3g 19만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윤지경*

골레드보 보메 크림 루즈 스파클 #301 Sweet Nectar 자연스럽고 신비한 컬러감 이 인상 깊었다. 투명한 핑클로스 제형에 비비탄은 미세한 글러터 입자가 들어 있어 입술을 좀 더 탱탱하게 연출해주며, 평한 색상과 레어 메이크업이 좋은 제품. 애플리케 이터가 스킨 로얄로 입술 신기도 및 표면을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8ml 6만2천원. 문의 080-564-7700. *by 인턴 에디터 신영민*

엘레미스 프로 콜라겐 로즈 마린 크림 엘레미스의 시그니처, 프로 콜라겐 마린 크림 에 이어 새롭게 출시한 데이 크림 및 안티에이징 크림. 수분과 진정 및 보습까지 더해 매끄러운 피복감과 다극으로 어두웠던 피부 투 수분을 머금은 장미꽃처럼 화사해졌다. 부드럽고 살기만 켈 텍스처로 흡수가 빨라 메이크업 전 건조한 부분에 특히 발라주면 피부 베이스가 온온하게 정돈되는 느낌. 50ml 16만6천원. 문의 02-3213-4175. *by 인턴 에디터 신영민*

샤이도 오아시스 리빙 액티베이션 에센스 1백50년 역사가 괜히 쌓인 게 아니다. 피 부 깊숙한 곳까지 필수 영양을 전달해 매끄러운 피복감과 광채를 선사하며, 오랜 시 간 촉촉하게 보호해준다. 매일 아침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면, 달달한 풍선껌 향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다. 145ml 12만1천원, 리필 145ml 10만2천 원이다.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리윤*

조 라브스 조 바이 조 라브스 핸드크림 끈적이는 질감을 꾸리는 편이라 자주 바르는 핸드크림을 고를 때 흡수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이 제품의 질감은 바로 빠른 흡수력.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은 물론, 전혀 부족함 없는 풍부한 영양과 보습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조 라브스의 시그니처 향이 담겨 향을 뿌리지 않아 도 하루 중일 선유할고 은은한 향을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다. 50ml 7만9천원. 문 의 1644-4480. *by 에디터 신영민*

앙마의 특육향 레스피 LHA 비탄인 글로우 바디 페드 자국이 적은 LHA 성분을 사 용해 손쉽게 보습과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보디 페딩링 제품이다. 비탄인 C 함량 이 높은 사본들 나무 오일이 들어 있어 보디 케어 후 피부에 보습 및 광채를 부여한 다. 사후 페드에 남은 오일로 손톱 큐티클이나 헤어에 영양 및 보습제로 발라주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110g 45만 3천2천원. 문의 080-860-1551. *by 인턴 에디터 신영민*

에스티 로더 오아시스 먼 이 향은 햇빛이 모래 위를 따스하게 비추는 새벽녘 시각, 새로운 모험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는 순간을 담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달콤하고 궁정적인 우디 플로럴 계열의 향. 무게감 있고 흠이 피어 있는 유리 보틀도 멋스럽 다. 100ml 25만1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장리윤*



SHOWROOM

LIFESTYLE

부거부

시몬스 | 삼성전자

BESPOKE Wedding Festival
with SIMMONS

베스포크 웨딩 페스티벌
2023.01.01 - 2023.02.19

리모와

쌈시.이트

BEAMIX
ILLUMINATED MINIMALIST

시몬스 시몬스와 함께하는 베스포크 웨딩 클럽 흡수 위시 리스트 1순위, 시몬스 샵상점자 베스포크 웨딩 클럽의 제휴 브랜드로서 다채로운 혜택을 선보인 다. 매일 선착순 1만 명에게 지급하는 베스포크 웨딩 클럽 전용 쿠폰을 지원하고 시몬스 갤러리와의 시몬스 맨션,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을 방문해 구매 시 금 액별 다양한 시몬스품을 증정한다. 베스포크 웨딩 클럽 쿠폰은 삼성 공식 사이트(samsung.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 1899-8182

리모와 트렐보 보틀 케이스 감각적인 여행객을 위한 프리미엄 라지지 브랜드 리모와에서 와인과 샴페인 보틀을 보관할 수 있는 트렐보 보틀 케이스를 선보인 다. 리모와의 아노다이징 그루브 알루미늄 소재로 제 작한 케이스는 충격을 흡수해줄 다양한 두께의 쿠션 패드를 내장했으며, 2개의 TSA 인증 잠금장치로 안 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다. 실버 컬러는 지장된 리모와 공식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rimowa.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056-2257

부거부 버러블라이 컴포트 힐보드 출시 네덜란드 프 리미엄 스토커 브랜드 부거부에서 휴대용 스토커라 인 부거부 버러블라이 컴포트 힐보드를 출시했다. 2 세 유아부터 체중 약 20kg의 어린이까지 입을 수 있 으며, 별도의 아답터 없이 간편하게 스토커에 장착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따뜻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하 는 외출을 기대한다면 버러블라이 컴포트 힐보드 와 함께해보자. 문의 1577-0680

쌈시.이트 비믹스 출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 드 쌈시.이트에서 미니멀한 디자인에 기술력을 더한 신제품 케어 비믹스를 출시했다. 2021년 전 세계 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를 수상한 케어 비믹스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의 철학을 담았다. 자문 인식 잠금장치로 손쉽게 열 수 있으며 화이트, 네이비, 블랙, 총 3가지 컬러로 선 보인다. 문의 02-2007-2943



TISSOT 2023 티소 The Gift of Time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밸런타인데이. 이를 기념하고자 1백70년 전 통의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티소에서 소중한 사 람에게 줄 기프트 아이템으로 밸런타인마스콜 레이다와 러블리 스케어 밸런타인 키트를 추천한다. 이번 시즌 새롭게 리얼로 출시한 밸런타인마스콜 레이다는 블루 마드오브릴 다이얼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스틸로 구성해 데일리의 워치로 추천한다. 아울러 1960 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작은 여성 시계 컬렉션인 러블리 스케어 키트는 크랩스와 반짝이는 핑크 하트를 프린트 한 피플 색상의 스트랩, 핑크 색상의 반짝이는 브레이 슬릿을 제공해 사랑의 영연함을 담았다. 3가지 컬러로 온 스트랩 컬러로 그날의 무드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문의 02-543-7685

로열 오크 파페추얼 캘린더 스위스의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브랜드 로데마 피어에서 주력 제품으로 로열 오크 파페추얼 캘린더 를 제공한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에 블루 세라 믹을 초초로 적용한 41mm 로열 오크 파페추얼 캘린더는 블루 그랑 타피스리 패턴 장식의 다이얼과 별이 빛나는 비하늘을 담은 블루 카운터가 시계의 블루 색 조와 완벽한 매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셀프 와인 디 5134 칼라바에 20m 방수 기능과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로 견고함을 더했다. 문의 contact.korea@audemarspiguet.com



FASHION

파비아나 필라피 2023 S/S 테크니컬 울 소재의 후 드 베스트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미학을 담은 브 랜드 파비아나 필라피가 기하학의 형태와 비율의 조 화를 담은 2023 S/S 컬렉션에서 테크니컬 울 소재의 후드 베스트를 선보였다. 섬세한 미모사 컬러에 반짝 이는 모달리 장식의 드로스트링이 돋보이는 후디 베 스테는 테크니컬 울 소재를 사용해 기온 차가 큰 환경 기에 제격이다. 볼륨감을 더한 바시니로 실루엣으 로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번 신제품은 전국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60-0843

로저 바비에

로저 바비에 베리 비비에 런칭 프렌치 럭셔리 브랜드 로저 바비에가 메종의 시그니처, 스트라스 버클 디에 일을 더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골프 스니커즈인 베리 비비에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아웃솔에 꽃 모양 과 다이아몬드 조각의 패턴 디자인으로 구성해 질적 령이 우수한 것은 물론, 태슬 디테일을 더해 캐주얼하 고 스포티한 무드를 담았다. 베리 비비에는 전 세계 적으로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리미티드 컬렉 션으로 화이트, 핑크, 브라운, 총 3가지 컬러로 제작 했다. 문의 02-6905-3370

파비아나 필라피

발렌티노 VLTN 슬림은 출시 이탈리아 럭셔리 오트 쿠티르 브랜드 매종 발렌티노에서 발렌티노 기라버니 VLTN 슬림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운 캔버스 소재에 매종을 상징하는 VLTN 로고 프린트를 더해 간결 한 라인인 톤보이는 클래식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100°C가 넘는 고열과 압력을 가해 만드는 벨트-이징 기법으로 제작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착 용감을 느낄 수 있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풍덩과 갈 광한 블랙, 화이트까지 총 3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 다. 문의 02-2015-4653

JEWEL & WATCH

BEAUTY



FENDI

ROMA

PALAZZO FENDI SEOUL NOW OPEN 442 APGUJEONG-RO